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경제난 극복·국민회합 기원대회'를 봉행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봉행된 이번 기원법회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지관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 정·관계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관련 기사 12면)

## 길막아 10리 돌아가는 스님

인근 기도원, 전기공사 못하도록 장애물도 설치

포항 한 기도원의 횡포에 2년째 시달리고 있는 노스님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포항시 청하면 청하사 주지 도명 스님(66)이 실리를 겪게 된 것은 2007년 11월 23일. 청하사 불사를 마치고 한전 측에 전기 공급 요청을 했던 때부터였다.

도명 스님은 공사비 4000여 만원을 한전 측에 입금하며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완납이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청하사에는 전력공급이 되지 않고 전봇대 한 대만 세워진 상황이다.

청하사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는 사찰 약 2km 앞에 위치한 반석기 도원 관계자가 공사를 막기 위해 유일한 다리와 교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아니고, 생길 당시 양보를 해서 교통로를 내게 했는데 사찰이 생긴다고 길을 막아버리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도원장 김 모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전신주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 후 한전 측이 '도와줄 것이 없다'고 문기에 한전장학금으로 아들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300만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스님 돈이어서 일처리에 기본이 상했다.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스님과 송 모씨 등 주민들은 "300만원을 건넨 후 기도원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합의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송 모씨는 스님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도원은 작년 12월 10일 경



청하사를 통하는 유일한 입구를 가로막고있는 철골구조물. 이것외에 다리 위 구조물과 담장이 더 있다.

전기는 물론 길까지 막힌 스님 길을 돌아다니느라 겨울마다 동상에 걸리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도 짙은 생필품은 장애물로부터 10리 가량을 직접 지고 날라야 한다.

도명 스님은 "신도들이 도와주지 않거나 불편하다. 몇 년간의 실랑이에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인근주민 송 모씨와 한전이 중재에 나섰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도원 측이 여전히 전신주 설치는 물론 도로의 장애물도 치울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송 모씨는 "조상 묘를 모신 곳에서 교통로 일부는 국가소유, 일부는 본인소유다. 기도원 평도

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았다. 벌금을 내도 막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원은 3월 16일에는 두 개의 방해물에 더해 1개의 담장을 추가 설치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소송중인 이유로 대문 등에 강제 철거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년12월31일) 8항에 근거해 철거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무성리한 책임전가와 기도원의 참사량(?) 실천에 오늘도 스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http://www.hyunbul.com)

법구경  
무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명상 속에 언제나 깨어 있는 사람은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불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위탁업무: 인사·회사·가사·행정  
1강원학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품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액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액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x7cm로 복장용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책장용, 상량용, 영가원도, 불사)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 “호미 든 원력으로 불교 중흥”

정토원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 세미나 등 개최

1959년 4월 5일,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심신·사회·경제·사상 개발의 원력을 세우고 호미 든 관세음보살상을 김해 봉화산에 봉안했다. 발고여락(拔苦與樂)하는 관세음보살은 그 날 이후 세상의 고통을 뺏고 희망을 심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 이듬해 4·19혁명이 일어나 민주국가의 기쁨이 다져진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했다. 관음성상을 모시던 날 나무를 심으며 올라왔던 많은 봉하 부락 중학생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도 있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닌 간절한 발원이 이뤄낸 일이었다.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을 맞아 대중불교운동의 가치를 드날릴 의미 있는 법회가 열렸다. '관세음보살 봉안 50주년 기념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안식·권오현)는 3월 20일 서울 BBS 불교방송국에서 관세음보살 봉안 5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승불교 100만 결사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등 20여 주요인사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

는 시대 상황에 맞게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불교운동을 상징하는 호미 든 관세음성상 봉안 정신을 계승해 정보산업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봉화 정토원 선진규 원장은 인사말에서 "호미를 든 관음성상이 새로운 불교중흥의 원력을 발하며 기원해주고, 불자들이 함께 일어서면 큰 변혁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서울길 명예교수가 진행한 세미나에서 원각불교사상연구원 권기중 원장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 대해 발표했다. 권 원장은 "사원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들의 빈곤탈피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던 20세기 중반 젊은 불교도들이 호미 든 관음상을 봉안하고 노동과 생산을 통한 불교 발전과 민중개도에 앞장선 것은 20세기의 새로운 불교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정병조 교수는 '실천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봉화산 청

소년수련원 설립 운영은 최초로 재가불교역량을 결집시킨 실천·응용 불교 활동"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봉춘 교수는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을 기점으로 자력불교로의 신행방향 제시와 참여·대중불교운동의 선구로 현대 NGO활동·호스피스 등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前 불교방송 권오현 전무, 동국대 고영섭 교수 등이 참여해 '대승불교 100만 결사운동' 의지를 천명했다. 대승불교 결사운동은 동국대 불교대학출신, 군법사 예비역, 대불련 출신을 주축으로 승속이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 홍영춘 회장, 기원학사 법우회 이재형 회장 등으로 꾸려졌다.

한편, 준비위는 4월 5일 11시 봉화 정토원에서 봉안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 14 헤기 스님

인터뷰 > 8 재경 스님



## 전국사찰 동시 법회! 저소득·실직가정 돕기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

<불자 여러분이 위기극복의 희망입니다!!>

- 전국 본말사 사찰에서 3월 초하루, 동시 모금법회 (1배100원 모금법회)
-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08배 기도와 모금으로 불교계가 앞장섭니다.

• 일시 | 불기 2553(2009)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경 • 장소 | 전국 본말사 (법당 및 경내)

\* 이날 하루 모금된 자비나눔 기금은 사찰을 통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됩니다.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불기  
등공양비 1천원을 기부합니다.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한끼나누기  
한끼5천원 기부하면 됩니다. 사찰은 쌀독 설치 운영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연꽃(벚지) 달기  
자비나눔 동참하시는 모든 분과 이웃에게 달아드립니다. (보급: 1개 1,000원)

기부참여안내 ■ 국민은행 023501-04-142119 ■ 농협 317-0000-1827-11 예금주 (재)아름다운 동행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02)2011-1822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www.thenanum.org

